

손실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

1. 국내 油價안정을 위한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폐업계는 불확실한 국제 石油정세하에서도 안정적인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귀부는 국제원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油價의 적정관리를 위해 석유사업기금수익을 매월 1회씩 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국제原油가격이 연초의 배럴당 12달러 수준에서 연말에는 17달러선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또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사업기금 인하 조정이 재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계는 막대한 손실요인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연말에는 원화 환율이 급격히 절하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등에 따라 '89년도에 정제비용이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비용 증가분은 익년 5월에 사후정산하며 사후정산시 일부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油價관리제도의 모순에 따라, 폐업계는 막대한 결손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요인에 따라, 폐업계가 '89년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손실요인은 약 600억원에 달하며, 동손실요인에 대한 별도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폐업계는 '89년도 결산이익은 허용이익(1,063억원)에 크게 미달한 세전 450억원(세후 250억원) 수준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이같은 이익규모는 '89년말 현재 정유업계의 자기자본규모가 7,5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이익률이 세후 3.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같은 이익규모로는 수요구조 경질화에 대응한 시설고도화 투자사업의 추진은 물론 주주에 대한 배당조차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연초부터 전세계에 걸친 흑화와 美國 일부 정유공장에서의 사고발생에 따라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여, 브렌트 및 WTI는 이미 배럴당 20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오만 및 두바이도 배럴당 19달러를 초과하거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도입 원유가격은 이미 배럴당 19달러를 초과하여 현재 油價반영 원유가격에 비해 배럴당 약 2달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급격히 절하되고 있는 원화 환율은 이미 680원선을 돌파하였으며, 조만간 690원 대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폐업계의 '89년도 적정결산을 위한 손실대책의 수립 및 '90년도 油價관리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업계의 '89년도 기간손익 적정화를 위해 상기 손실요인에 대한 손실보전과 '89년도 결산에 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부의 '88년도 油價 사후정산시 일부비용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손실요인을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유가격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의 인하·보전을 조기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화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해소를 위하여 油價반영 환율을 예측치로 현실화하고 유전스 환차손을 사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油價관리방식을 객관화하여 판매수익, 환율, 정제비 등 모든 이익 및 손실요인이 당 회계년도 이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폐업계는 앞으로도 국내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점언드립니다.

1990년 1월 12일

대한석유협회